

한국, 재생에너지기구 창립이사국 선출

한국이 국제재생에너지기구(IREANA)의 창립이사국으로 선출됐다.

외교통상부는 아랍에미리트(UAE)의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창립총회에서 한국이 21개 창립 이사국(임기 2년)으로 선출됐다고 4월5일 발표했다.

2010년 10월 서울에서 아태지역 재생에너지 정책자문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부가 기울인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.

IRENA는 신·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, 149개 회원국이 참여한다.

<화학저널 2011/04/05>